

만남

2016 7월
통권 138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_____	3
신부님 칼럼	+ "왜 의심을 품었느냐?" _____	4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은 의인의 보루(시편 11,1-7) _____	5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141~143 -----	8
기도 소개	여행 전 기도 _____	12
찬 양	어둠 속의 빛으로 -----	13
공동체 소식	_____	14
지방 공동체 소식	_____	16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_____	17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_____	18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_____	19
미사안내	_____	20

《교황님의 7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토착 민족들

정체성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토착 민족들이 정당한 존중을 받도록 기도하십니다.

❖ 선교 지향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의 교회가 대륙의 선교를 위하여 새로운 힘과 열정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합니다.

성년 표어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라'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

교황님의 권고 기도문(2015.12.8-2016.11.20)

2016년 11월 달까지 미사 전에 바칩니다.

†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워지라고 가르치시며 주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저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자캐오와 마태오를 돈의 종살이에서 풀어 주시고,
피조물에서만 기쁨을 찾던 간음한 여인과 막달레나를 구원하셨으며,
베드로가 배반을 한 뒤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참회하는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나이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듣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보이는 얼굴이시며,
용서와 자비로 모든 이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얼굴이시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보이는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나약함으로 갈아임고,
무지와 잘못에 빠진 이들과 함께 아파하기를 바라셨으니,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용서를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소서.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 기쁨을 부어 주시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비의 희년이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열정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억압받는 이들과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해 주소서.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비나이다.(고개를 숙이며)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
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따뜻함이 시작되는 6월 한 달을 보내고 독일에서의 밝음의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 한 달은 은총과 축복으로 더욱 더 충만한 보람이 있고, 행복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스승이나 동료 혹은 벗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스승이나 동료 혹은 벗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 주위에 당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당신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거나 당신을 더 깊은 구렁 속으로 밀어 넣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곤경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돈과 재산을 모우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갖가지 지식을 쌓고, 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 자신하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고, 곤경에 빠졌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용기와 힘을 보태줄 동료나 벗이 없다면, 돈이나 재물, 지위나 명예 속에서도 불행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납니다. 그가 물 위를 걸겠노라 터무니없는 만용(蠻勇)을 부릴 수 있었던 것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만, 사실 그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시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이웃과 형제들에게 구원과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들도 당신에게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7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은 의인의 보루(시편 11,1-7)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한 분이 시편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1, 1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2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매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3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4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5 주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얼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6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의 몫이 되리라.

7 주님께서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리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시편 말씀을 듣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미인대칭(미소,인사,대화,칭찬)의 삶 [의인의 삶]”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인 동시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기심과 관대함 사이, 정직함과 눈속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하느님으로부터도 듣고 싶어 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시험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늘 새롭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에 항구히 머문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며 존귀하다. 또한 함께 하는 이에게 선함의 방식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내가 타인에게 보내는 미소와 인사하기, 따스한 대화와 칭찬으로 매 순간 이루어진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래 글은 전임 베네딕토 교황님의 글로서 다른 이를 바라보는 존엄성을 맘에 새겨본다.

“내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향해 보낸 눈길이 나의 존엄성을 결정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물로 환원하려 할 때, 동시에 나에게 달려드는 내가 바라보는 방식의 결과들(곧 나 자신도 이용당하고 파괴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물이다)을 받아 들여야만 한다.

(중략)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이 나의 인간성을 결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의 사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내가 그와 나의 존엄성, 그와 나의 존재가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이다. 다른 사람은 내 존엄성의 보호자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1987)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며 유일무이한 존엄성의 품격을 드러내며 하느님 보시기에 선하고 존귀한 의인의 삶을 살아내자.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96장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준주성법 제 1 권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교리141

제13장 유혹에 맞섬

1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욕기에도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7,1)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피야 한다. ‘우리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1베드 5,8 참조)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유혹이 비록 성가시고 심각한 것일지라도 유용할 때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유혹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정화되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모두 다 많은 유혹과 시련 중에 지냈으며 그런 가운데 진보했다. 그러나 유혹과 시련에 맞설 수 없었던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떨어져 나갔다.

4 유혹의 뿌리를 뽑지 않고 겉으로만 피하는 사람은 많은 진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 피했던 유혹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유혹은 그전보다 더 강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번거롭고, 부적절하며, 모질게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천천히, 조금씩, 오랫동안 참아 가면서 유혹을 이겨 내야 한다. 유혹을 당하게 되면 자주 훈계를 청하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엄하게 대하지 말고, 너도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남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할 것임을 생각하여 그를 많이 위로해 주어라.

5 모든 유혹의 시초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느님께 그다지 신뢰를 두지 않는 데 있다. 키가 없는 배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사람도 마음이 약하여 자기가 정한 뜻을 버리면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게 된다. 불은 쇠를 단련

시켜 주고 유혹은 의인을 강하게 한다. 스스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유혹은 가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원수가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대항하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오비디우스)이 말하기를 “시초에 막아라. 오래 지체하여 병이 중해지면 약을 준비해도 이미 늦으리라.” 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만 마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는 맹렬한 상상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쾌락이 생기고, 잇따라 악한 충동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이를 승낙한다. 이와 같이 원수를 처음에 대적하지 않으면 많은 원수가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대적하지 않으면 성전聖戰에 게을렀던 만큼 사람은 날로 더 약해지고, 사람을 거스르는 원수는 점점 더 강해진다.

7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겪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니, 하느님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면 어느 때나 잘 도와주시며, 또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실 것’ (1코린 10, 13 참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나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느님의 손아래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마음으로 겸손한 이를 구하시고 들어 올리시기 때문이다.

8 유혹을 겪어 보고 시련을 당해 보아야 자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알게 되고, 공로도 더 얻고 덕행이 잘 드러나게 된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헌신적이고 성실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역경을 당하면서도 성실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역경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 나갈 때 많이 진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나 매일 작은 유혹에는 자주 넘어간다. 그는 사소한 시련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 큰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

교리142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

1 눈을 돌려 너 자신을 살피되,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자주 잘못을 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살피는 데서는 오히려 중요한 유익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사로운 느낌 때문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만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우리와 대치되더라도 쉽게 동요되어서는 안 된다.

2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무언가에, 혹은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이끌리곤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곧 번민하여 슬퍼한다. 친구나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 혹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자주 분열이 생기는 것은 각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오래된 습관은 끊기가 어렵다. 누구나 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지식과 재주를 따르려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빛을 매우 드물게 또는 늦게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간적 지혜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교리143

제15장 애덕으로 수행한 과업

1 세상의 무슨 일을 위하여,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을 하던 중이라도 중지해야 할 때가 있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를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일을 꾀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애덕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결실을 충분히 맺을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한 일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2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또한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보다도 공동선에 기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애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일을 본성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만 하려고도 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반면에 참되고 완전한 애덕을 갖춘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자기를 찾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갈망하지도 않으며 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더 큰 영광만을 갈망한다. 그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느님께만 돌리는데, 만물이 그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느님 안에서 축복받은 모든 이들이 그 극진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비안네 신부

여행 전 기도

주여, 저를 평화와 안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저의 이번 여행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제 구원에 보탬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저의 발길을 지켜주시는 줄 아오나,
 그를 저의 수호자로 세우시어 저의 길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이번 여행길에서 저를 보호하게 하소서.

오. 하느님, 당신은 라파엘 천사를 당신 종 토비아에게 보내시어
 그의 길을 수행케 하셨나이다.
 저에게도 그런 보호를 허락하시어 저를 지키고 보호하며
 위험에서 구하게 해 주소서.
 사랑하옵 주님,
 저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어, 저를 기다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343

어둠속의 빛으로

지선경



1. 나는 어둠이있었는데 밝고 환한 빛이되었네 나는
2. 빛 가운데 하늘을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뵈아 세상



눈물이있었는데 맑고 고운 웃음되었네 그 것
고통심하다해도 빛과 소망 중에살리라 그 것



은 주님의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요 아름



다 온나의주님이 나와 항상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 - 과함께 영원토록함께살겠네

❖ 7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에 스 텔	우 영 주	크리스토퍼	김 영 기
3일	토 마 스 (St. Thomas)	강 신 행 이 정 수 홍 중 각 박 귀 동	25일 (St. Christopher)	Rabe
10일	베로니카	김 매 자	야 고 보	김 형 응
11일	(St. Veronica)	김 욱 종	안 나	김 순 임
12일		박 성 아	26일 (St. Anna)	심 은 희 최 경 숙 이 정 은
20일	(구약) 엘 리 야	이 동 윤	아 나 벨	한 선 지
21일	다 니 엘 (St. Daniel)	심 동 근 김 무 송 김 선 일	28일 (St. Annabel)	정 정 숙
22일	막달레나 (St. Magdalena)	김 원 자	빅 토 르	허 두 욱
24일	크리스티나 (St. Christina)	이 정 욱 문 귀 욱	29일 (St. Martha)	김 정 숙

❖ 7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토 마 스 (St. Thomas)	탁준성(H)	25일	발렌티나	임선희(O)
12일	베로니카	최희정(B)	26일	안 나 (St. Anna)	강지우(H) 곽유정(H) 정애령(H) 탁화자(H)
22일	마리아 막달레나	김혜림(B)	31일	이나시오	목진만(H)

❖ 7월 성가번호

7월	입 당	봉 헌	마 침
3일	287	221	286
10일	439	512	21
17일	55	217	461
24일	436	215	35
31일	34	211	415

❖ 7월 미사 전례 봉사자 ❖

7월	독서	제병봉헌	복사	카페 봉사
3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이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현묵(요셉)	2구역
10일	이선주(로사) 박귀동(토마)	배성우(도밍고) 박종래(바오로)	주일학교 복사단	3구역
17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심은희(안나)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복사단	4구역
24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이정수(토마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청년회
31일	김애란(세실리아) 김매자(베로니카)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최장용(레오) 곽케빈(요셉)	요셉 마리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5월 29일	6월 5일	6월 12일	6월 1일
계(€)	233	271.05	198.91	245.47

❖ 자진헌납금 ❖

2016년 5.23 — 2016년 6.19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김기현, 김형웅, 이수웅, 배성우, 우동천, 이기열, 이경규, 이정수, 이현묵, 이영희,
이석우, 한선지, 현영애, 이공종, 손수희, 육종인, 박성아, 진윤희, 최장용, 강순행,
강신행, 정정숙, 박종래, 민경화, 이종화, 윤예진, 최승진, 김건, 김경미, 이종지, 이수연,
오옥수, 이정은, 서세원, 안지영, 최순남, 김민수, 한말조

구좌입금 :

강일남, 홍경영, 남궁 춘배, 최성자, 김대현, 김수혜, 백정선, 최현봉, 김치수, 김진호,
김동수, 허두옥, 서유미, 허길조, 곽케빈, 이성원, 이상봉, 권지연, 최화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월부터 자비의 희년에 바치는 기도가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바쳐집니다. **일시 : 2015.12.8 - 2016.11.20**
2. 7월 3일은 전 함부르크 교구장이셨던 베르너 주교님의 금경축(50주년)입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3.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체 공동체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기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4. 예비자 교리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방은일, 황태엽, 한규호**,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 방 공 동 체 소 식 ❖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2. 브레멘 공동체, 조영실 마리세실 자매님의 아들, Michael Dieck이 신부 Marie - Louise양과 지난 3월 19일 Bremen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리세실 자매님의 아드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시작된 새 가정에 주님의 축복 기도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2. 매달 첫째 주 토요일 15:00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갖습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부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6 2491 007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반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7 월 중 행 사 예 정 표

2016년도

함부르크 본당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복음 나누기 기도회1	
2	토			브레멘 공동체
3	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사목협의회	
4	월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5	화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6	수			
7	목	소서		
8	금		2구역 소공동체	
9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0	일	연중 제15주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성 베네딕토 아파스 기념일		
12	화			
13	수			
14	목			
15	금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초복, 제헌절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기념일 대서	복음 나누기 기도회2	
23	토			
24	일	연중 제17주일		
25	월	성 야고보 사도 축일		
26	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27	수	중복		
28	목		연령회	
29	금	성녀 마르타 기념일		전체 공동체 청년 수련회
30	토			
31	일	연중 제18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최 영 속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장만표 ❖

발행인	최종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집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

H.P : 0157 5447792